



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매입, 금융시장 불안요인 우려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행(BOJ)이 보유한 국채 등 총자산 규모가 11월 말 현재 156조 3,579억 엔으로 약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.¹⁾

- 일본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전년동월대비 9%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약 70%에 해당하는 약 111조 엔을 국채가 차지한다고 밝혔음.
 - 이는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을 풀어 시장에서 국채 등을 대거 매입했기 때문이며, 내년 말까지 국채 등을 약 27조 엔 더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- 반면, 총자산 가운데 약 20% 가량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로 나타났음.
- 한편,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으로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지난 주 한 때 연 0.7%를 밑돌아 9년래 최저치로 하락하였으며, 은행 대출금리도 최저 연 1.3%까지 떨어졌음.

■ 한편, 국제결제은행(BIS)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따르면 일본 은행권이 보유한 일본 국채는 은행들의 기본자본(Tier1)²⁾의 900%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함.

- 반면, 미국 은행들의 기본자본 대비 자국 국채 비율은 100%, 영국은 25%에 불과한 수준임.
 - 일본 은행권의 국채 보유 비중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할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며, 일본 국채의 디폴트(default)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은행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임.
- 한편, 일본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250%에 달해 미국과 영국보다 2.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.

(아사히신문 외, 12/4)

1) 2005년 12월 말 155조 6,071억 엔을 기록, 2006년 3월 양적완화 해제 후 2007년 6월 말에는 100조 엔 정도로 축소되었으나,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금융완화로 자산이 확대되고 있음.

2) 은행 자기자본은 기본자본(Tier1)과 보완자본(Tier2)로 나뉘며, 기본자본은 자본금, 자본준비금,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함.